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영광’ 조성

‘불갑사 관광지’ 본격 확장
연간 300만명 유치 목표
부지 정비·교량 2개소 설치
2023년에는 기존 상가 이전



영광군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갑사 일원.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난항을 겪었던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연간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 사업에 나섰다.

영광군은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영광 불갑산 상사와 축제와 연계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불갑사 관광지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광편의 증진과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부지 정비, 교량 2개소 설치, 상·하수도 관 매설 등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기존 상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까지 ‘불갑 테마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갑저수지 관광지원사업’과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천년 고찰 ‘불갑사’는 보물 제830호 대웅전을 비롯해 귀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연속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영광 불갑산 상사와 축제’도 전국적인 가을꽃 축제로 유명하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연간 80만명에서 1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열었지만 10만명에서 12만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대비해 불갑사 관광지 일대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lee@kwangju.co.kr

신설 진도소방서 7월 문 연다

소방인력 116명·차량 27대 배치



진도소방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소방서는 진도읍 포산리 일원 7385㎡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966㎡)로 신축한다. <조감도>

청사 건립에는 총 68억7500만원이 투입되며 설계공모 심사와 신축공사 계약 체결을 거쳐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방인력 116명·차량 27대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진도군 전 지역을 관할한다.

군은 소방서가 완공되면 원거리 재난사고 사각 지역 해소와 함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소방서 건립으로 보다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민들의 희망과 염원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추진

무안읍·몽탄면 등 태양광·태양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해당 지역은 연간 3억 원(가구당 연 65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총 36억원을 투입해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 일원 453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진 무안군 지역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일요일, 삼향을 일원의 389개소에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완료해 운영 중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명승 ‘가거도 섬등반도’ 활용방안 만든다

철새 중간기착지·낙조 경관 일품
멸치잡이 노래·해녀문화 등 보존
문화·생태적 조명 정비계획 수립



섬등반도 일몰.

신안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가거도 섬등반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역사·문화·생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군은 섬등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 부문별 계획수립, 문화재구역 내의 활용계획 등을 만든다.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는 국경의 끝점이자 시작점으로 영토 수호의 버팀목이다.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해녀문화 등 섬 본연의 문화가 온전하게 남아있어 역사문화자원 가치가 높다.

신안군에서 가장 높은 독실산(해발 639m) 자락의 후박나무 군락과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섬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많은 철새의 중간기착지다.

가거도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이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장관을 이루며 낙조 경관이 아름다운 점이 높게 평가돼 명승으로 지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등반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아름다운 섬 가거도를 지키고, 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자연과 사람이 상생해왔던 가거도 섬 문화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자가진단키트 확보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3월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확보했다.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자가진단키트 배부 후 음성 확인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지역 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및 면역체

계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선제 검사로 청소년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숨은 감염자 발굴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움츠린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확보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옛 세관창고 복합공간 음식판매시설 운영자 모집

목포시가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에 들어

설 스킨푸드존(음식판매시설) 운영자를 모집한다.

시는 2020년 6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세관 터와 창고 2개 동에 대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나서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큰 창고(661.16㎡)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랩과 스킨푸드존으로 구성된다.

작은 창고(330.58㎡)는 목포세관 기획전시 공

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큰 창고는 ‘맛의 도시’ 목포의 미식 관광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며, 그 첫걸음으로 스킨푸드존 운영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목포 9미를 활용한 음식과 주전부리 3종 세트, 음료(자카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